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조사 착수… 전용 신고센터 운영

중기부, 입점업체 매출 현황 파악
소공연 누리집서 8일부터 접수
소비자 불안 확산에 피해 우려
宋 “책임 공백 속 고통 심각”
조사 결과로 법정부 대응 검토

정부가 쿠팡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조사에 본격 나선다. 신고 접수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법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강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8일부터 소공연 누리집(www.kfme.or.kr)에서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사실 파악을 위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쿠팡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의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쿠팡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쿠팡 입점 소상공인 사이에서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이나 애로를 신고할 전용 창구가 없다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쿠팡의 멈추지 않는 갑질, 벼랑 끝 자영업의 절규-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계가 있었다.

중기부와 소공연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동시에 소상공인 대상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피해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쿠팡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째로 접수들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대표단체가 직접 나서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접수받아 중기부에 전달해 법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쿠팡 입점 셀러의 약 75%가 소상공인으로 추정된다. 앞서 소공연은 ▲쿠팡 과실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 ▲입점 소상공인들에 대한 불공정 시스템 중단 ▲국회의 쿠팡 국정조사 즉각 실시 등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성명서를 통해 “역대급 통제 시스템 붕괴 앞에서도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만’ 그 자체로, 김범석 의장이 뒤로 숨은 채 진행된 청문회와 기만적인 보상책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는 여야를 초월한 쿠팡 국정조사에 착수하면서 김범석 의장을 즉각 소환해 쿠팡의 갑질 균형 방안을 마련하고 차례에 플랫폼 기업의 과실로 인한 입점 셀러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에도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공연 회원인 89개 단체 소속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쿠팡 사태 관련 피해 조사도 진행해 현장 목소리를 꼭꼭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 입점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들은 ‘쿠팡 사태 법정부 TF’에 공유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효성重, 초고압변압기 누적생산액 10조 돌파

창원공장, 국내 첫 단일 공장 기록 50년 기술 축적… 초고압 국산화 미국·유럽 핵심 시장 점유율 1위 HVDC 등 차세대 전력기기 확대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이 초고압변압기 누적 생산액 10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전력기기 산업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뒀다.

8일 효성중공업에 따르면 창원공장은 지난 7일 기준 초고압변압기 누적 생산액 10조원을 달성했다. 단일 공장에서 초고압변압기와 차단기 생산액이 각각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국내에서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이 유일하다.

효성중공업은 1969년 국내 최초로 154kV 초고압변압기를 개발·생산한 이후 기술 축적을 이어왔다. 2002년 초고

압변압기 누적 생산액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14년 5조원을 달성했고 올해 1월 10조원 고지를 넘어서었다.

지난 50여 년간 효성중공업은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전력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해 왔다. 154kV와 345kV 초고압변압기에 이어 1992년에는 세계 여섯 번째이자 국내 최초로 765kV 초고

압변압기를 독자 개발하며 초고압 전력

기기 국산화를 이끌었다. 2022년에는 400kV 친환경 절연유 변압기 개발에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전압형 HVDC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공급될 500kV HVD

C 변환용 변압기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기술 경쟁력을 토대로 효성중

공업은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에 맞춤

형 전력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2010년대 초부터 765kV 변압기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노르웨이 등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은 유럽 주요 송전시장에서도 400kV 변압기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입지를 굳혔다.

글로벌 수주 확대에 힘입어 창원공장은 2023년 이후 3년 연속 초고압변압기 단일 품목 기준 연간 수주액 1조원 이상을 이어가고 있다.

조현준 회장은 “초고압변압기 생산 10조원 달성을 그간 쌓아온 고객의 신뢰와 ‘최고 품질’을 향한 창원공장의 집념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변압기·차단기·HVDC 등 토클 솔루션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이병권 “글로벌 기업 성장위해 정책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중기부,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추진 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8일 “지역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로컬에서 출발해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마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최근 K-컬처의 확산과 함께 많은 로컬기업들이 수출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재 중심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일곱 번째 행사다.

중기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로컬창업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러한 로컬창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기 위해 로컬 창업가 9명과 투자전문가 등을 초청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크립톤 양경준 대표는 ‘로컬창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자의 역할’이란 주제로 지역에서 출발한 로컬창업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소개했다. 양 대표는 단순한 기업 성장을 넘어 관계인구 유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과 대한민국 전반으로 글로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적 효과가 확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글로벌 진출 성공사례 발표에서는 서산, 제주, 영덕 등 다양한 지역의 로컬창업 기업들이 지역 지원과 고유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브랜드를 구축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해 성과를 거둔 경험을 공유했다.

/김승호 기자

팅크웨어, 사용자 편의강화 블랙박스 선봬

‘아이나비 ZX3000’ 선보여
고온차단 등 안전기능 강화

팅크웨어가 사용자의 편의성과 제품 안전성을 강화한 블랙박스 ‘아이나비 Z X3000’(사진)을 출시했다.

8일 킹크웨어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아이나비 ZX1000’의 후속 모델로, 전후방 FHD 30fps 녹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메모리 사용 효율을 높이는 ‘메모리 절약 모드’ ▲배터리 전압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저전압 상황에서 전원을 자동 차단하는 ‘배터리 방전 보호 기능’ ▲고온 환경에서 제품 손상을 자동 방지하는 ‘고온 차단 기능’ 등 제품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을 탑재했다.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한 편의 기능도 강화했다. 어두운 주행·주차 환경에서도 번호판과 주변 사물을 보다 선명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나이트 비전’ 기능을 적용했으며, 3.5인치 풀 터치 LCD를 통해 영상 재생과 설정 메뉴 등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아울러 제품 품질 강화 정책에 따라 2년 무상 A/S를 제공해 유



자·관리 편의성도 높였다.

‘아이나비 ZX3000’은 실시간 통신 기반의 ‘커넥티드 스탠다드 플러스’ 서비스도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주차 충격 실시간 알림 및 이미지 전송 ▲운행 기록 및 운전 습관 데이터 제공 ▲차량 소모품 교체 알림 ▲주행 중 큰 충격 발생 시 보호자에게 긴급 문자 전송 등 사용자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기능으로 구성했다.

팅크웨어 관계자는 “아이나비 ZX 3000은 저장 효율, 전원 관리, 야간 활영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요구되는 핵심 성능을 중심으로 완성도를 높인 모델”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SK인텔릭스, ‘나무엑스’에 구글 제미나이 연동

검색 기능 통해 이슈 등 실시간 답변

SK인텔릭스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웰니스 로봇 ‘나무엑스(NAMUHX)’(사진)에 구글의 최첨단 AI 모델 ‘제미나이(Gemini)’를 연동해 초지능형 AI 웰니스 플랫폼으로서 완성도를 한층 강화했다.

8일 SK인텔릭스에 따르면 나무엑스는 자율주행과 100% 음성 제어 기능을 바탕으로 실내 공기의 오염원을 스스로 감지·정화하는 ‘에어 솔루션(Air Soluti

on)’, 비접촉식 광혈류측정(rPPG) 기술로 체온·심장활동강도·맥박·산소포화도·스트레스 지수 등 5가지 주요 건강 지표를 10초 이내에 측정하는 ‘바이탈 사이체크(Vital Sign Check)’ 등 혁신 기능을 제공한다.

향후 나무엑스는 차별화한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씨큐리티, 뷰티, 명상, 펫케어, 슬립케어 등 다양한 웰니스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일상 전반을 케어하는 통합형 웰니스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